

속 터지는 공공시설 와이파이...5월부터 잘 터진다

대학생 임고은(여·23)씨는 버스를 탈 때마다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하지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접속이 잘 되다가도 가끔씩 자동으로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져 재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속이 터지는' 순간들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임씨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다가 와이파이가 끊기면 짜증이 난다"면서 "무료라 참고 사용하고 있지만, 와이파이를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올해 대학에 들어간 고재용(20)씨는 데이터 요금을 아끼기 위해 공공시설에 들어갈 때마다 무료 와이파이를 찾고 있다. 고씨는 "공공시설의 와이파이를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종종 끊겨 SNS 메시지조차 보내지 못할 때가 있어 답답함을 느낀다"면서 "끊기는 이유라도 제대로 알 수 있으면 덜 답답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오는 5월부터는 임씨·고씨와 같이 광주시 공공 와이파이(Wi-Fi)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공공 와이파이 관제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때문이다.

광주시는 4월안에 '공공 와이파이 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 관련 장애 처리와 트래픽 분석 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 공공 와이파이 관제시스템은 서울과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다. 광주시 협력사인 KT

가 3억 9000만원을 부담해 광주시청 3층에 220인치의 규모로 종합상황판 등 관제센터를 설치한다.

공공 와이파이에는 주민센터, 복지시설, 전통시장, 시내버스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KT·SKT·LG U+)의 협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시민들의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너도 나도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광주시, 와이파이관제센터 내달부터 운영 '전국 세번째' 시내버스·정류장 등 2914개 'Public WiFi Free' 선택

에 나서고 있다. 이에 광주시도 지난 2013년부터 공공 와이파이 망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현재까지 광주 전역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에는 총 2914개에 달한다.

시설별로 시내버스가 1044개로 가장 많고, 버스정류장(767개), 공공시설(256개), 복지시설(237개), 공원(405개), 관광지(45개), 전통시장(69개), 기타(91개) 등 순으로 설치됐다.

공공 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기기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주변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해 'Public WiFi Free'를 선택하면 된다.

버스의 경우에는 'Public WiFi Free'노선번호로 접속 후 사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광주

시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장소는 공공 와이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광주시 공공 와이파이 이용 과정에서 끊김 현상으로 불편을 겪어도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광주지역내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관리를 서울에 있는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했기 때문이다.

중앙 관리 방식은 정확한 장애 대상을 식별할 수 없고 민원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에 공공 와이파이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제센터는 한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6월 중 본격 운영된다. 공공 와이파이 종합상황판에는 설치된 와이파이 망의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며 장애 단계에 따라 색상이 표시되고 접속 건수와 트래픽 양 등이 집계된다.

이에따라 사용자가 많은 곳에 데이터를 더 많이 배정하고, 고장의 우려가 있는 곳을 미리 알고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 공공 와이파이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관제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이번 관제센터 설치의 주 목적이다. 트래픽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하반기 중 200개소를 추가 설치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광주시 공공 와이파이 접속 건수는 6402만 8576건이었으며 데이터 사용량은 360.03 테라바이트에 달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광주 중앙도서관 분관이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천 봄 청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3일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KTX 함평역 임시 정차

28일~5월 7일 하루 3회씩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최 기간 동안 KTX가 함평역에서 임시 정차한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KTX는 축제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 동안 하루 3회씩 함평역에서 임시 정차한다.

축제를 방문하는 수도권 및 충청권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조

치다.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하행선은 오전 6시 28분, 7시 46분, 8시 19분 총 3차례 운행하며, 함평역에서 출발하는 상행선은 오후 4시 7분, 5시 11분, 6시 15분에 발차한다.

함평군은 KTX 이용객 편의를 위해 함평역과 축제장(함평엑스포공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축제 입장권을 할인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행복복구 유튜브 영상 전국 공모전

광주 복구 31일까지

광주시 복구가 올해 처음으로 복구 홍보 유튜브 영상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

복구는 '행복복구 매력을 찾아봐'라는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들과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고, 복구의 다양한 정책 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팀(4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영상은 총 3~5분 분량으로 복구만의 자원과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주제로 만들어야 한다.

형식은 영화·광고·다큐멘터리·비로그 등 제한이 없다. 응모작 중 38건을 선정해 대상에겐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등 총 17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장애인 드론축구 체험교실 참가자 모집

광주 남구, 5일까지

광주시 남구가 5일까지 장애인 드론축구 체험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드론 축구는 올해 남구에서 처음 선보이는 스포츠로, 휠체어 장애인들도 간단한 조종 학습을 통해 즐길 수 있어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공중에 있는 도넛 모양의 골대에 드론을 넣는 방식이며 5명의 선수와 5개의 드론볼로 구성, 1명의 공격수와 4명의 수비수로 나뉜다.

날아간드론협동조합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며 장애인복지기금 800만 원으로 운영된다.

회차별로 10명을 모집하며 교육은 13일과 14일, 17일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김다인 기자 kdi@

불경기 속 '무인 옷가게' 등장

광주 충장로에 8평 규모 남성옷 전문점...매출 3배 늘어

불경기 속 인건비 등을 절감하기 위한 '무인(無人) 점포'가 늘어나는 가운데, 광주 도심 한 가운데에 '무인 옷가게'까지 등장했다.

기존 무인점포는 인형뽑기 등의 가게에서 시작했다. 직원이 필요 없는 무인점포는 노래방과 편의점, 스터디카페와 문구점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런 변화 끝에 이제는 옷가게까지 무인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이 무인 옷가게는 지난

해 9월 주변과 같이 평범한 옷가게로 문을 열었지만 올해 1월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26.44㎡(8평) 규모의 가게에서는 남성 옷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옷 구매는 손님이 가격표에 적힌 금액을 직접 결제한 뒤 영수증과 구매한 옷을 촬영해 기입된 번호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A씨는 "개업 초기에는 한 달 수입 150만 원 가운데 100만 원 가량의 월세와 옷 도매가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인건비도 들지 않고 다른 일도 겸할 수 있는 무인 옷가게를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며 옷가게 운영을 겸하고 있다.

"가게에 사람이 없으면 도난을 막을 수 없지 않겠나", "CCTV를 설치해 봐야 소용 없을 거다" 등 주변의 우려 속에 시작했지만 도난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성 손님들이 보다 편하게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월 매출이 400만 원 가량으로 늘었다"며 "인건비가 안 들고 다른 일도 겸할 수 있어 가게에 상주하고 있을 때보다 사정이 훨씬 좋아졌다"고 밝게 웃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